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재도약의 힘, 창조경제
경제혁신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2016년 4월 14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13.(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4. 12 (화)	담당부서	기계로봇과
담당과장	정창현 과장 (044-203-4310)	담 당 자	김지선 주무관 (044-203-4319)

제17회 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SIMTOS 2016) 개막

- 생산제조기술의 미래와 기술트렌드를 한눈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주최하고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제17회 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SIMTOS 2016)'이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4.13.~ 17. 까지(5일간) 열린다.

* 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SIMTOS: Seoul International Manufacturing Technology Show)

○ 동 전시회는 격년 개최되는 **세계 4대 생산제조기술전시회***로서 올해는 35개국 1,125개사가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이다.

* 전시면적: 유럽 유럽국제공작기계전시회(286천㎡), 미국 시카고국제공작기계박람회(250천㎡), 중국 국제공작기계전시회(120천㎡), **한국 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SIMTOS((102천㎡)**

** 규모: **(참가업체수)** 총 35개국 1,132개사 **(전시품목수)** 8,500여점 (제16회 대비 30.7% 증가) **(전시부스)** 6,142부스

□ 이번 전시회에는 공작기계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자동화시스템 등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비롯한 **제조 트렌드의 현황과 미래상을 중점 제시했다.**

○ 정보통신기술(ICT)융합 공작기계, 제조로봇 결합 무인자동화시스템 등 스마트공장 하드웨어 및 제조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전시하는 **특별관**을 운영한다.

○ 그 밖에 △금속절삭 및 금형가공관 △부품·소재 및 모션컨트롤관 △자동화·캐드캠·측정기 및 로봇관 △공구 및 관련 기기관 △금속절단가공 및 용접관 △프레스 및 성형기계관 등 분야별 제조기술 전시관도 운영

○ 더불어 해외수출지원을 위해 국내외 바이어 1:1 상담회와 8개 전문분야별 기술세미나*가 함께 진행될 예정으로

* 공작기계, 레이저, 로봇(자동화), 측정,공구, 캐드캠(소프트웨어(S/W), 입체(3D)프린터), 용접, 지능형공장(스마트팩토리)

○ 전시회가 생산업계에는 제품 홍보와 국·내외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가 되고, 수요업계에는 공작기계와 그 주변기기 및 로봇 등 관련 최신 기술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4.13.(수) 개막식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손종현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장을 비롯하여 요시마로 하나키 일본 공작기계협회장, 응웬 반투 베트남기계산업협회장, 루디 안드리야나 인니 공작기계협회장 등 **국내외 주요 공작기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개최를 축하한다.

○ 주형환 장관은 축사에서 **1976년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공작기계 자립화**를 착수하였다면, **2016년**에는 **제조업의 생산성 혁신과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융합형 스마트 공작기계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①**스마트공장을 산업전반으로 확산**시키고 ②산업수요변화에 맞춰 **지능형 시스템 위주로 공작기계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③기술력 있는 **중소·중견 기계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붙임: 전시회 및 개막식 개요 1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축사 끝.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김지선 주무관(044-203-431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17회 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 전시회 개요 및 개막식 행사 개요**

□ 전시회 개요

- o 행사명: 제17회 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 (SIMTOS 2016)
  * SIMTOS: Seoul International Manufacturing Technology Show
- o 일시: '16.4.13(수)~17(일)
- o 장소: 일산 킨텍스(KINTEX) 제1, 2전시장
- o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 o 참가업체: 총 35개국 1,132개사 6,142부스
- o 참관규모: 10만명 예상 (외국인 참관객 5천명)

□ 개막식 개요

- o 일시/장소: '16.4.13(수) 10:30~11:20 / 킨텍스 제1전시장 2홀앞
- o 참석 :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장, 이탈리아 대사, 한국기계연구원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등 150여명

□ 세부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막식 10:30～11:20	(1분)	행사 안내	사회자
	(4분)	SIMTOS 영상상영	
	(4분)	VIP소개 (10명)	사회자
	(3분)	개회사	협회장
	(5분)	축사	산업부장관
	(5분)	개막 버튼 터치 / 기념촬영	주요인사
	(28분)	전시장 순시	제1전시장

붙임2 **개막식 주요 참석자**

사진	소속 및 직위	성 명	이력 사항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회장	손 종 현	○ (前)대전상공회의소 회장 ○ (現)(주)남선기공 회장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명예회장	권 영 렬	○ (現)화천기계(주) 회장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전임회장	류 흥 목	○ (現)한국공작기계(주) 회장
	이탈리아 대사	Mr.Marco della Seta	○ (現)주한 이탈리아 대사 * 국가관, 바이어 참가국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임 용 택	○ (現)POSCO 철강전문교수 ○ (現)한국기계연구원장('14.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이 영 수	○ (現)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13.12~)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 순 황	○ (現)건우정공 대표이사
	일본공작기계협회 회장	Mr. Yoshimaro Hanaki	○ (주)Okuma Corporation 회장 ○ (現)일본공작기계산업협회 회장
	베트남기계산업협회 회장	Mr.Nguyen Van Thu	○ (現)베트남기계산업협회 회장

붙임3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축사**

1 인사 말씀

손종현 공작기계산업협회 회장님,
마르코 델라 세타 이탈리아 대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입니다.

세계 4대 공작기계 전시회로 자리매김한
2016년 SIMTOS(서울 국제 생산제조 기술전) 개막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간 SIMTOS는 우리 기계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선보이는 한편,
국내외 제조기업간 협력을 통해 공작기계 산업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 수준을 높이는 장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전반적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전산업 △8.0%)
우리 공작기계는 0.7% 수출이 증가하며 선전하였습니다.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우리 공작기계인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SIMTOS 같은 전시회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2 공작기계 중요성 및 당부

내외 귀빈 여러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수출은 녹록치 않습니다.

* '15년 △8.0(5,268억불) // '16.1월 △18.9%, 2월 △12.2%, 3월 △8.2%

이는 신흥국의 경기둔화, 저유가, 글로벌 공급과잉 등
대외 여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대체 신산업이 창출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 ICT를 접목하여 제조공정을 혁신하고
제품을 고도화시켜야 합니다.

이미 해외의 경우,
독일의 "Industry 4.0", 중국의 "제조 2025",
미국의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등
제조현장과 IT 융합을 통해
공정과 제품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공작기계가 한국경제의 주력산업 도약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976년 정부와 기업은 공작기계 산업의 자립화를 통해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2016년 지금은 ICT융합형 스마트 기계 개발을 통해
스마트카, 항공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공작기계가 기여해야할 때입니다.

선진국 중심으로
전통적 공작기계 모델에
3D프린팅 기술과 에너지 모니터링 기술 등이 융합되는 형태로
공작기계 산업의 기술혁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공작기계의 지능화를 통해
기계산업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수요산업인 제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해
로봇시스템 적용 무인자동화, 스마트 제조기술 등
융합신기술의 선제적 기술개발에 노력해야 합니다.

3 향후 정부정책 추진방향

정부도 공작기계 산업의 고도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스마트공장을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대표 스마트공장을 선정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스마트공장의 구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ICT와 최첨단 공작기계 기술이 융합된
데모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여
수요기업에는 스마트기계의 우수성을 보이고,
기계기업에는 신기술을 검증하여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까지 2천개, 2020년까지 1만개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산업 수요변화에 맞춰
단품이 아니라 시스템 위주의
공작기계 산업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선진기업은 기계와 IT, 제어시스템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솔루션 공급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미래성장동력의 하나로
티타늄, 탄소섬유 등 소재 첨단화에 맞춰
첨단소재 가공을 위한 고정밀·고강도
가공시스템을 개발중입니다.

향후 항공·전자 등 수요업계와 협력하여

장비·공정기술·솔루션 일체를
최적화된 패키지로 공급하는
공작기계 시스템화를 발굴·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유망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신흥시장 중심으로 ODA 사업을 추진*하여
신흥국의 산업발전과 국산기계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한편,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외 유망전시회 참가지원 등
마케팅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한-인니간 범용선반기계 공동모델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완료('15)

4 맺음 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방산업의 규모가 크고,
IT융합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공작기계 산업이 지속 성장해 나가는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보여줄 스마트공장 등
미래의 모습을 통하여
공작기계 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수요산업이 동반 성장해나가는 비전을

함께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시회 개최를 위해 수고하신
공작기계산업협회 및 회원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